

금토일 영하 12도·30cm 폭설 최강한파 농수산물 냉해 '비상'

광주·전남 20년 만의 강추위
오늘부터 기온 푹 떨어지고
8~10일 올 겨울 한파 절정
수도관 동파·사고 등 철저 대비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2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나주 등 내륙지역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목포·신안·영광·함평 등 전남 서부권은 이 기간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년에 찾아올 기록적인 한파와 강한 바람, 폭설에 따른 수도관 동파, 낙상·교통사고, 시설하우스·축사·양식장 등 농업 시설 한파 및 붕괴 피해 예방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5일 전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6일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 금요일과 토요일인 오는 8, 9일 올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나주 영하 12도, 순천·광양 영하 10도, 목포 영하 9도, 여수 영하 8도로 각각 예보됐다. 이날 예보된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년 전인 2001년 1월 15일 아침 최저기온인 영하 12.5도에 버금가는 기록적인 추위로, 지난해 겨울 광주의 최저 기온인 영하 5도와 비교하면 한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광주기상청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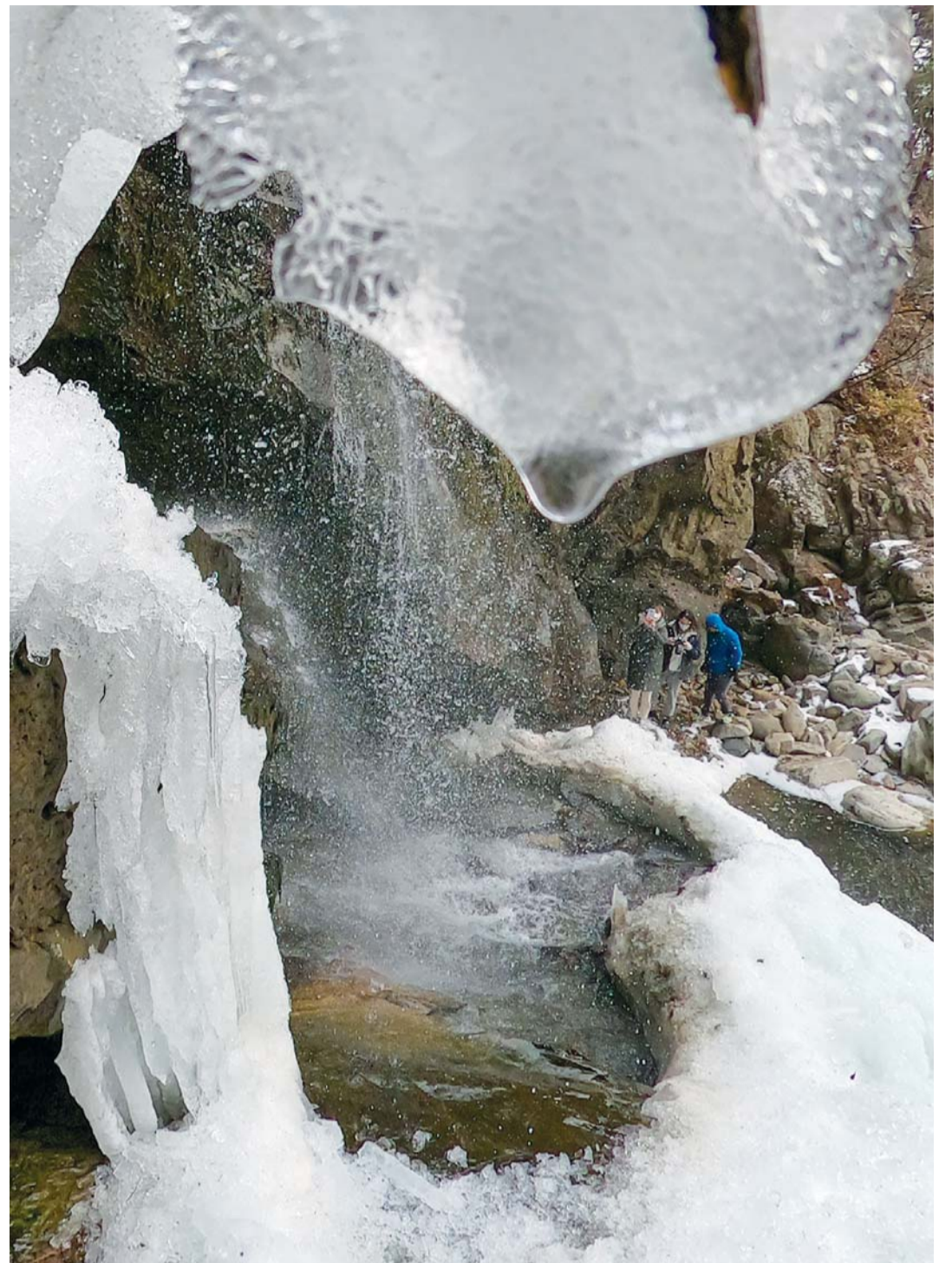
겨울철 한파 발생 시 주의사항

-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내복·목도리·모자·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 보온에 유의
-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
- 심한 감기, 기역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 저체온 증세 의심 후 바로 병원 내원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 현 우 등으로 보온
- 과도한 음주·무리한 일 피하기
- 외출 후 손발 씻기
-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
- 장기간 외출 시 온수 약하게 틀어 동파 방지

자료/국민재난안전포털 연합뉴스

9일 아침 최저기온도 광주·나주 영하 12도, 순천 영하 10도, 광양 영하 9도, 목포 영하 8도, 여수 영하 7도로 예보됐다. 8-9일 이틀간 광주·전남 낮 기온은 곳에 따라 영하 5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동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훨씬 낮게 느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휴일인 10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추위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나주 영하 7도, 순천·광양 영하 6도, 목포·여수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곳에 따라 2-4도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폭설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은 "추위가 몰아치는 오는 8-10일까지 누적 강설량이 목포 등 전남 서부권의 경우 최대 30c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나머지 전남지역도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구체적 전망치는 추후 발표되는 기상 예보에 답할 것"이라고 했다. 기상청은 또한 오는 8-9일은 해상에서도 많은 눈이 내리고, 파고도 2-4m로 높게 예상되는 만큼 조업에 나선 선박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폭설을 동반한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되자 전남도는 수도관 동파 예방과 함께 시설하우스와 축사, 양식장 등 농업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재난대책반을 꾸리고 대비에 들어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공 얼어붙은 수락폭포 절기상 가장 추운 시기로 꼽히는 소한(小寒)인 5일 구례 산동면 수락폭포 주변이 공공 얼어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특별·한전공대법 시급한데, 국회 통과는 언제?

아특별, 7~8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한전공대법, 상임위도 통과 못해

오는 7-8일 국회 본회의의 개기가 예정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 등 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특별 개정안과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전공대 법안은 시기를 다투는 법률안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7-8일 긴급현안질문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안건 및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5일 밝혔다. 현재 아특별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한전공대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특별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

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특별과 한전공대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관련 사업이 좌초될 우려도 크다. 아특별의 경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돼 문화전당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한전공대법안도 오는 2022년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특별의 경우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한시를 놓을 수 있지만 한전공대법안은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의 상정 등 갈 길이 멀어 시간을 다투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거리두기 지치나... '방역 불복' 잇따라 ▶6면
2021 새 설계 - 화순군·순천시·정읍시 ▶11~13면
전남 드래곤즈 K리그1 승격 위한 시동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요양병원발 코로나 감염 전남으로 확산

광주 5명 추가·전남 2명 발생

광주에서 효정요양병원 입원 환자 4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요양원발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광주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면>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명(광주 1235~1248번)이다. 이 가운데 4명(1237~1240번)은 효정요양병원 입원환자이며, 1명(1243번)은 직원이다. 7명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예비 그린 요양원 1명, 청사교회 관련 1명 등이 추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환자 58명, 직원 14명, 가족·지인 11명 등 83명이다. 이날 병원 확진자들은 기존에 확진자가 나온 본관 1·2층이 아닌 본관 3층과 신관 2층의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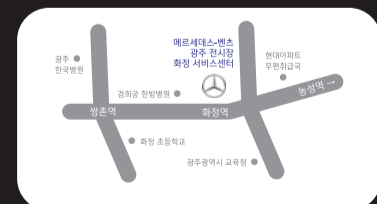
환자들이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본관 1층 2명, 2층 52명, 3층 3명, 신관 2층 1명이다. 방역 당국은 본관 3층과 신관 2층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곳의 입원 환자들을 분리·재배치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도 광주 효정요양병원 관련 2차 접촉(접촉자의 접촉자)에 따른 확진자 2명이 지난 4일 발생했다. 전남 595, 596번 확진자인 광양 거주자로, 이들은 최근 친척이 머문 광주를 찾았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4일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2명씩 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5일 오후 6시 현재 순천에서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597명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황금 서브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정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안대로 516(수원동)
호수 서브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이원대로 603(백갈 205호 본동)
수안 서브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로47번지 520(수안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4.0)도심연비:10.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4.0)도심연비:10.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